

코로나로 수학 교육 양극화 커졌다... '수포자' 증가 우려

〈수학 포기자〉

수학 하위권 학생 성적 하락세 커
원격수업 늘면서 교육 격차 심화
통합 수능서 수학 중요도 높아져
공교육 내 실효성 있는 교육 필요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위주 학기 운영이 늘면서 고등학생의 수학 성취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은 성적이 소폭 오른 반면 하위권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유투이미지

코로나19사태 등의 영향으로 고등학생들의 수학 성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 수능에서도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반복되면서 수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교육 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수학 성적 하위권 고등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눈에 띄게 하락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평가연구논문인 '코로나19를 전후한 고등학생 수학 성취도 변화: 실태 및 영향요인'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로 상위권과 하위권의 수학 격차 크게 벌어졌으며, 특히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연구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위주의 학기 운영 기간이 길어지자

교육격차가 한층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특히,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평균 수학 척도점수가 낮아졌다. 상위권·중위권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하위권에서 급격한 점수 하락이 나타나면서 교육 양극화의 심화가 발견됐다.

연도별, 분위별 수학 평균 척도점수

를 살펴보면 상위권 학생들은 2019년 171점에서 2020년 172점, 중위권 학생들은 150점에서 149점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하위권 학생들은 122점에서 113점으로 떨어지면서 유일하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학교육의 양극화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주요대 반영 비율, 통합수능 구

조등에도 수학의 유불리가 극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이 공개한 2023학년도 주요대 정시 수학 유불리 분석에 따르면 주요대 정시 반영비율에서 수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상위권 대학의 수학반영비율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에서는 25%~45%, 자연계열에서는 25%~50%로 분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어 반영비율은 인문계열에서 20%~40%, 자연계열에서 15%~36.7%로 전 계열에서 수학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물론 이화여대 인문계, 단국대 건축학 등 수학 대비 국어의 반영 비율이 5~10%p가량 큰 학과도 존재하는 한다.

통합 수능 도입 2년 차인 현재,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꾸준히 지적되면서 수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2023학년도 수능 역시 수학이 '열쇠(key)'라고 평가하며, 국어에서도 이과 강세를 예측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금년도에는 과목간 중요도에서 수학의 비중이 대단히 높아졌

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학교수준에서 학업성취 격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별로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평균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상위권과 하위권 간 점수 차이가 더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성적 분위별 성취도 격차 분석에서도 코로나19 시기에 상위권 학생들은 학업성취가 높아졌지만, 하위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공교육 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실제로 '사교육격정없는 세상'의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83%가 원격수업으로 사교육 필요성을 느꼈고, 사교육 증가 비율도 48.3%로 절반에 가깝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시기에 하위권 학생의 성취도 하락 폭이 더 컸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초학습부진 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 초등기초학력 사업성과 공유·토론

서울시교육청, 성과 공유마당 개최
사업 방향, 현장 안착방안 등 논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초등 기초학력 보장 활동에 대한 운영 및 지도 사례를 공유하고자 '2022 초등 기초학력 보장사업 성과 공유마당'을 6일 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 성과 공유마당과 ▲초등 기초학력 보장사업 성과 공유마당으로 운영된다.

먼저 서울학습도움센터 성과 공유마당에서는 학교 밖 학습안전망인 서울학습도움센터 및 난독·경계선지능 전문가 관계자 250여명이 참가한다. 학습도움센터 학습상담봉사자들의 지도 사례와 과학교사의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난독·경계선지능 전문가의 학생 지도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2023년 기초학력 정책 및 학교 밖 학습 안전망 사업에 대한 정책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초등 기초학력 보장사업 성과 공유마당에서는 학습지원 담당교원과 기초학력 지원단 뿐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하며 기초학력 보장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분임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2022 학습 성장 스토리 공모전'에서 선정된 학부모와 학생의 사례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 전문기관 간 연계 사례 ▲협력강사제 운영(서울도봉초) 사례 ▲담임교사 맞춤형 밀착 지원(서울방현초) 사례 ▲복합인인 학습지원 대상학생 지원(서울북성초) 사례 ▲기초학력 교사연구회 운영 사례(서울공진초 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분임별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과 더불어 학습지원대상학생들에 대한 촘촘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던 개별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의 기초학력 보장사업이 나아갈 방향과 현장 안착 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교사가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에 정서와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직접 보충·보정지도 하는 '키다리샘'은 초등교원 18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92%가 키다리샘 지도가 자녀의 교과학습 보충에 많은 도움이 되며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1년부터 모든 공립초 1,2학년에 배치한 협력강사 정책에 대한 설문에서도, 학부모의 81%, 교사의 87%가 수업 중 교과 보충 및 배움이 느린 개별 학생 지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은 기자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이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축제를 연다. 사진은 사이버한국외대 재학생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이버한국외대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학술축제'

개원 10주년 기념 강연 등 진행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이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축제를 10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한다. 'CUFS GS TESOL to the Next Level!'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특강으로 해외 저명인사 초청강연이 준비돼 있다. TESOL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Dr.

Charlene Polio(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Dr. Bronson Hui(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Hadar Shemesh(the Accent's way)를 초청해 학술축제의 1부 온라인 강연 세션을 마련했다.

학술축제의 2부 세션으로는 오프라인 콜로кви움이 열린다. 신정아 동국대학교 교수와 김혜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제2언어 습득 등을 주제로 당일 오후 4시부터 각각 한 시간씩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국민대, 내·외부 연계 학생 심리치료 강화

10·29참사 관련 트라우마 회복 등

국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가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회복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민대 학생생활상담센터는 재학생들의 정신건강, 성격, 대인관계, 진로 등의 고민거리에 대해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29참사와 관련해 상담

센터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외상(트라우마)회복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통합적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긴급심리지원은 이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또는 영상매체 등 간접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로 '심리적 재난 상황에서 마음건강유지를 위한 대처요령(한국상담심리학회 제공)'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무료 심리지원 기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참사로



국민대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재학생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대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 1:1 심리상담서비스'를 통해 생존 학생 및 목격 학생들의 위기도와 상황에 따라 외부기관 연계와 내부 전문가를 통한 심리치료도 병행한다. /신하은 기자

서울사이버대 심리·상담대학 국제 상담심리 세미나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대학 주관으로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사이버대학교 스마트강의실에서 제2회 국제상담심리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스웨덴, 미국의 저명한 연사들을 초청해 진행하며,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됐다. 비대면(유투브 생중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사이버대 재학생, 예비 입학생뿐만 아니라 사전신청을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세미나 주제는 '한국·스웨덴·미국 내 심리상담에서의 인지행동치료(CBT)

적용'으로 한국, 스웨덴, 미국 3개국의 초청 발표자들이 의견을 공유한다. 세부적으로 ▲제1주제는 Michael Lewin 교수(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현대 인지행동치료: 수용과 변화전략의 균형' ▲제2주제는 Per Carlbring 교수(스톡홀름대학교 심리학과)의 '인터넷을 활용한 인지행동 치료의 적용' ▲제3주제는 박경애 교수(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의 'CBT의 원조, REBT 적용의 발자취: 한국의 상담을 중심으로!'이다. 각각 30여분의 발표 후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사회는 서울사이버대 심리·상담대학의 김현진 교수(상담심리학과)와 한수미 교수(상담심리학과)가 맡았다. /신하은 기자